

지역 예술인 · 주민 함께하는 기획전시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 작가 · 완주 화정마을 할머니들 프로젝트 참여... 4월 27일까지 하안양옥집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운영하는 하안양옥집에서 2025년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

19일 재단에 따르면 4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세대 간 소통을 통해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첫 전시는 '꽃을 그리는 마음과 봄을 맞이하는 마음'이 같은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진솔한 삶과 마음의 이야기를 도민 및 관광객과 나누고자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전북일보의 지역 소멸 위기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됐다'와 협력해 이뤄졌다. 청년 인구가 단 한 명도 없는 완주군 고산면 화정마을 할머니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매화꽃, 백합, 달리아, 수선화, 무궁화, 튜립,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 그림 23점을 직접 그렸다.

화정마을의 한 할머니는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제대로 못 하니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는데 이런 기회를 주니 희망을 찾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우리 집에 달래꽃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하안양옥집에서 2025년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걸 그렸다"며 "가을까지 피는 달래꽃이 참 이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지역 작가는 이종만, 박상규, 최분아, 이동근, 조현동 등 모두 5명이다. 거친 붓질과 강렬한 색채로 희망을 표현한 이종만 작가, 조형적 요소로 꽃의 조화를 나타낸 박상규 작가, 꽃을 통해 행복과 따스한 향기를 전한 최분아 작가, 섬세한 표현으로 감정을 담아낸 이동근 작가, 생명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조현동 작가 등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기법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오는 26일에는 참여 작가들과 화정마을 할머

님들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도 마련됐다.

전시를 찾은 한 관객은 "할머니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꽃들이 하안양옥집을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다"며 "희망찬 봄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하안양옥집이 도내 예술인과 도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전시가 도민들에게 외로움을 넘어 따뜻한 봄의 희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화관운영팀(063-230-4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체험 통해 국가무형유산 가치 알린다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지역연계 지원 사업 선정

(재)완주문화재단 ·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사장 유희태)은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2025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지역 연계 지원 사업에 '반갑다 우리무형유산! 김치담그기, 막걸리빚기'라는 프로그램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사업은 지역 기반의 공동체종목 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난해에는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 해당 사업을 통해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인 '김치 담그기' 전승공동체 '우리 김치 품앗이'를 성공적으로 결성한 바 있다.

올해에는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21개 중에서 김치담그기와 막걸리빚기 두 종목에 선정되어 총 2,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오는



5월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반갑다 우리 문화유산! 김치담그기, 막걸리빚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희태 이사장은 "우리의 무형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에도 살아 숨 쉬는 소중한 자산을 기억해야 하며, 이번 체험 기회를 통해 국가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사회 내 전승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육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백제역사유적지구 슬로전 공모전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31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익산시가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이사장 김기영)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 슬로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 백제 후기(475~660)의 대표 유산으로, 익산·공주·부여 3개 지역에 걸쳐 있는 연속유산이다.

'사비후기' 익산 왕궁리유적과 익산 미륵사지 △'웅진시기' 공주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왕릉원 △'사비시기' 부여 관북리유적·부소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 부여 나성으로 구성돼 있다.

공모전은 1인 최대 5건까지 응모할 수 있고, 온라인(forms.gle/GaNK5fQrUHYuQSh19)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응모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당선된 슬로전은 국가유산청,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의 누리집을 비롯해 홍보물과 정책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백제세계



유산센터 누리집(www.baekje-heritage.or.kr)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02-2233-4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10주년을 맞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문화재단, 꿈의 무용단 '전주 프리크스' 어린이 단원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20~31일까지 2025년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전주 프리크스! 어린이 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전주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며, 전년도 참여자를 우선 선발한 후 단원규모 내에서 신규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3기 단원 25명은 오는 4월부터 매주 일요일 총 27차시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쇼케이스 무대와 정기공연을 갖게 된다.

올해는 '꿈의 공간: 엉뚱한 솜바꼭질'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공간을 탐색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발레 무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신청은 팔복예술공장 혹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모집기간 내 팔복예술공장 카페 페이지에서는 지난해 활동결과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회도 열린다. 22일에는 전시현장에서 학부모 대상 어린이 단원 모집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전주지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발레라는 무용 장르를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전주 예술교육의 전문성과 시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새일센터, '실버케어전문가 양성과정' 일자리협력망 회의 개최

전북새일센터(원장 전정희)는 19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인 '실버케어전문가 양성과정'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버케어전문가 양성과정은 노인복지사업의

이해, 노년기 교육, 노인돌이치로, 행정실무 등 시니어 관련 지도사 자격 취득 및 활동 프로그램이다. 전문교육, 취업대비, 직무소양 등 총 120시간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일자리협력망 회의에는 △늘푸른집 △희망재가복지센터 △송천효도림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혜산 엠마노노인복지센터 △(주)시니어브레인케어 등 관련분야 대표자가 참석해 직업훈련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기업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번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